

<반짝반짝 한국어> 9 Verb/Adjective 더라고요

Noun+ (이)더라고요

Hello and Welcome to Twinkling Korean podcast season4 episode 9. This podcast is designed to help people with learning Korean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M: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한국어의 Stefano 입니다.

F: 안녕하세요. 향기입니다. stefano 씨, 안녕하세요.

M: 네, 안녕하세요. 향기 씨,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F: 네, 잘 지냈어요. Stefano 씨는 지난주에 뭐 했어요?

M: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인사동에 갔다 왔어요.

F: 인사동이요? 인사동에 가서 뭐 했어요?

M: 날씨가 좋아서 산책도 하면서 이것저것 구경했어요. 그리고 차도 마셨고요. 오래간만에 갔는데 재미있더라고요.

F: 그랬구나. 재미있었겠네요.

M: 아 참, Last Friday was the Hangeul Proclamation Day. Isn't it?

F: 네, 맞아요. 10 월 9 일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한글날이에요.

M: 그래서 그런지 길에 한글이 쓰여 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F: 아, 맞아요. 요즘 한글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더라고요.

M: There are so many Korean signs in 인사동 even Starbucks. The Korean sign of Starbucks in 인사동 is unusual because the Starbucks is supposed to be English sign.

F: 맞아요. 인사동은 한국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영어로 만든 간판을 사용할 수 없어요.

M: 그럼 향기 씨는 지난주에 뭐 했어요?

F: 저는 지난 주말에 홍대에 갔다 왔어요. 진짜 사람이 많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아주 재미있어하더라고요. 벼룩시장에서 물건도 구경하고 길거리 음식도 먹고 재미있게 놀다가 왔어요.

M: Did you go the flea market?

F: 네, 전에 우리 반짝반짝 한국어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홍대 벼룩시장은 유명하거든요. 생각보다 싸고 좋은 물건이 많더라고요.

M: I go the 홍대 often but I have never been flea market. I must go once.

F: 네, 꼭 한번 가 보세요. 여러분도 서울에 오면 꼭 한번 가 보세요. 그럼 Stefano 씨, 오늘은 뭘 공부해 볼까요?

M: What about 더라고요 today? We just used this expression a lot to talk about the thing we did last week.

F: '-더라고요'? 이거 좋네요.

M: 그럼 오늘도 제가 설명을 시작해 볼까요?

F: 네, 그러시죠.

M: so, 더라고요 can be used with verbs, adjectives and nouns when the speaker delivers to other people his feelings and impressions about he did.

F: 그러니까 '-더라고요'는 동사, 형용사, 명사 다음에 연결돼서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보거나 듣거나 느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요. 조금 간접화법하고 비슷한데 말이 아니라 느낀 것을 전하는 거네요.

M: That is right. Indirect speech as in '갔다고 했어요. 재미있었다고 했어요. 쉬는 날이라고 했어요' is used when someone just reports other people's words. On the contrary, '-더라고요' is used when someone is talking to someone about his own experience.

F: 그럼 오늘도 문장을 만들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M: 네, 좋아요. A moment ago I said '한글이 쓰여 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I personally went there and saw/did such and such, and with '-더라고요' I am reporting that experience to you.

F: 맞아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온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아주 재미있어하더라고요.'라고 했어요.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친구하고 홍대에 갔을 때 제 친구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을 Stefano 씨한테 전하면서 만든 문장이네요. 그럼 문장을 계속 만들면서 이야기해 보죠.

M: I went to the movie theatre with friend while I was in 인사동 last week. 그런데 영화 상영 시간을 잘못 알아서 극장에 도착하니까 영화가 이미 끝났더라고요.

F: 그랬구나. 저는 홍대에서 그 미국 친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에 가고 싶었는데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그날이 커피숍 쉬는 날이더라고요.

M: 그랬구나.

F: 그랬구나. 저만 따라 하지 말고 여기서 설명 좀 부탁해요. 아까는 '-더라고요'를 사용했는데 방금 Stefano 씨하고 제가 만든 문장은 '-았/었/였더라고요'를 사용했잖아요.

M: Yes. That's because the action is already over. In the sentence I uttered before, I used '-았/었/였더라고요' because the movie had finished already and the coffee shop hadn't open yet. It's the same as what you said before '요즘 한글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간접화법에서도 과거에 이미 완료가 된 것은 '-았/었/였다고'를 쓰잖아요. '-더라고요'도 마찬가지로 '-았/었/였더라고요'를 써야 되는 거죠.

F: 오, 설명을 잘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했을 때 이미 끝난 동작이나 일은 그냥 '-더라고요'가 아니라 '-았/었/였더라고요'를 써야 한다는 의미네요.

M: 그렇죠. 제가 아주 설명을 잘했죠?

F: 네, 아주 잘했어요. 그럼 제가 문장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저는 아까 밖에 잠깐 나갔다 오더라고요.' 이 문장은 어때요?

M: Uhm, actually that is not correct. How is it possible for someone for see, hear or feel himself? In those cases you should just say '저는 아까 밖에 잠깐 나갔다 왔어요.'

F: 역시 Stefano 씨한테 아무리 이상한 문장을 만들어 줘도 잘 안다니까요.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럼 이거는요?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M: 네. 이 문장은 괜찮아요.

F: 왜요? 방금 Stefano 씨가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는 쓸 수 없다고 했잖아요.

M: You're right. That's kind of an exceptional situation. That is to say when people describe their own body, because it is something that you can look at in a detached way.

F: 그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길에서 자고 있더라고요'는 어때요?

M: Yes, that's also correct. It's because you are 'discovering' a new self you couldn't have imagined before. By the way, does that happen to you often?

F: 아니거든요. 자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 표현 어땠어요? 재미있었나요? 조금 문형이 많아서 복잡할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화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보거나 듣거나 느낀 것을 많이 많이 소개해 주세요. Stefano 씨, 그럼 우리 주소 좀 알려 주세요.

M: 네, 우리 주소는요. www.facebook.com/twinkling.korean 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F: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3

M: 네, 좋아요. 이번 코너는 드라마 속 명대사죠? 오늘 배울 대사는 뭐예요?

F: 오늘은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 2'에서 나온 대사에요.

M: '식샤를 합시다'라고요? 왜 '식사'가 아니라 '식샤'예요?

F: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식샤를 합시다 1'에서 여자 주인공이 '식샤를 합시다'라고 하는 블로그를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드라마 제목도 '식샤를 합시다' 인 것 같아요. 더 자세한 건 모르겠네요.

M: 그렇구나. There are so many eating scenes. I feel hungry whenever I see this drama.

F: 네. 저도 정말 먹고 싶었어요.

M: 그런데 오늘 배울 대사는 뭐예요?

F: 그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미안해할 일 안 하면 되잖아.'

M: '미안해할 일 안 하면 되잖아.'라고요? 누군가한테 자꾸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나 보네요.

F: 맞아요. 여자 주인공이 한 남자와 사귀다가 헤어지면서 남자한테 자꾸 미안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 미안하다는 말 듣기 싫다, 차라리 미안해할 일 안 하면 되지 않냐고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M: Don't do anything you'd say 'I'm sorry about...' I guess that means let's not break up.

F: 오, Stefano 씨, 센스가 있어요. 맞아요. 이 대사에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헤어지지 말자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M: 제가 좀 센스가 있기는 하죠.

F: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 말은 이렇게 남녀 사이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예요. 누군가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 했을 때도 쓸 수 있고 친구하고 싸웠을 때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M: 그렇구나. 향기 씨, 앞으로 미안해할 일 안 하면 되잖아요.

F: 갑자기 왜 그래요?

M: Uhm, just keep practicing with you this expression.

F: 그걸 왜 저한테 연습해요? 으이구. Stefano 씨, 진짜라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 해 보세요.

미안해할 일 안 하면 되잖아*3

오늘 대사는 Stefano 씨가 저한테 이 말을 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식샤를 합시다'에 나오는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으면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

Stefano 씨, 다시 한번 우리 주소 알려 주세요.

M: www.facebook.com/twinkling.korean 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F: 여러분, 오늘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M: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nd don't miss our next episode.

M: Twinkling Korean, the Korean Learning podcast is designed and recorded by Gilddong KFL.

© 2015 Gilddong KFL All right reserved.

